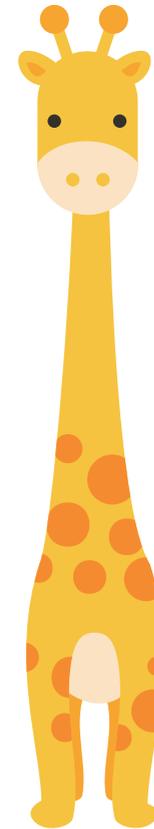


동물
친화적
학교 만들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친화적
학교 만들기



KARA



여는 글 _4
추천사 _6
한국의 교육과정과 동물보호교육 _8

1. 동물을 존중하는 생태체험 _12
2.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 _20
3. 우리 곁의 동물들 _28
4. 반려동물 돌봄 _34
5. 야생동물 존중 _40
6. 동물사육과 생명에 대한 책임 _48
7.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과 생명존중 _52
8. 교실 밖, 배움의 현장들 _58

[부록]

한국의 동물보호법 _64
(사)동물권행동 카라 소개 _68

왜 '동물친화적 학교'일까요? 나라에서 『동물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펴낸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동물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사육되는 토끼, 닭, 개미, 개구리 등의 동물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교내 사육장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여러 과목에서 활용되는 교육과정에도, 체험학습이나 급식의 현장에도,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늘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도록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동물은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아니라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미 생산된 음식이나 물건, 서비스 등에서 동물의 존재는 쉽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생활의 곳곳에서 동물을 만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동물을 만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동물보호교육에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진 학생과 교사는 있지만, 아직 '동물'이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주제로서 학교 현장에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카라는 학교라는 공간과 우리의 삶이 동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그저 동물을 구경하거나 만지는 것을 넘어 동물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와 태도를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동물이 저마다 소중한 생명과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하여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교사들

이 기존의 교육과정 안팎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물보호 동아리를 개설해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 즉 '생명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 '차이와 공존' 등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나가며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입니다.

이 책은 교사, 학생, 교직원 등 교내의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동물보호'라는 주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 교내 동물사육, 동물 해부실습 등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동물과 반려동물, 더 나아가 야생동물을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동물보호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교실 밖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과 같은 공적 기관들에서도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교육이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자 시민교육 중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의 학교가 동물친화적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에게 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와 그때 느낀 감정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확립된 습관과 가치관은 평생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에서 준비한 『동물친화적 학교 만들기』는 매우 유효하고 귀중한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라는 창립 초기부터 동물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생명공감 교육이 가진 중요성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이에 카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고, 10대 청소년들과는 ‘영카라’를 통해 동물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얼마 전에는 만 5세 유아를 위한 교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동물친화적 학교 만들기』는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확보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단순 이해를 넘어 실천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책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 간 충분한 상호토론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산업사회 이전에 동물과 인간은 때로는 적으로서 상호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체로 큰 간섭 없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무한 속도의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동물이 가진 사회적 위치는 사회 내 가장 열등한 계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제멋대로 동물에게 실험을 하거나, 동물의 고통에는 눈 감은 채 전시동물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해서 죽이고 먹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해왔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 지 오래이며, 만연한 동물학대와 동물착취는 인간의 자비로운 품성과 배려심을 마비시킨 지 오래입니다.

나는 ‘동물이 지금처럼 인간의 일방적 이용과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동물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통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결코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부디 이 책이 ‘지구와 인간의 공생’을 위한 깊은 깨달음과 작은 실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그간 이 책을 내기 위해 많은 애를 쓴 카라의 활동가인 권유경과 박아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사)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임순례

한국의 교육과정과 동물보호교육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과정이 '동물'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뤄온 영역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탐구'는 동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기르는 체험을 하는 것과 동일시되어 왔고,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동물이 가진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유아 대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보면, 동물 주제가 제시되는 영역은 '자연탐구'입니다. 자연탐구 영역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유아기부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일상의 여러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과학적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 '과학적 탐구하기'의 구성 내용인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를 통해, 유아가 관심 있는 동식물의 성장 및 생태 환경이나 사람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생명체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주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흐름은 이후 초등학교 과학 교과의 '생명과 지구' 내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초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 '동물해부'가 편성되어, '과학 탐구'라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식의 접근으로까지 확장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해부가 '생명 존중 교육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9년 초등교육과정에서 다행히 동물해부실험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과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자연환경의 일부로만 대상화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동물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 등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구조적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동

물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한 '관계'를 고민해야 할 대상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소수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기 위한 동물보호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교육적 주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수학적 탐구를 위해 강아지나 양의 수를 셈할 수도 있고, 예술 교육의 활동으로 동물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좋음과 싫음,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동물을 동등한 생명이자 공존의 대상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 영역의 내용은 나와 타인, 가족, 더불어 살아가기, 사회에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가족'을 다룰 때 반려동물을 포함시킨다거나, '지역사회'를 다룰 때 우리 동네의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환경교육뿐 아니라 윤리교육으로서 동물에 대한 교육을 다루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시민교육'이나 '인도주의 교육'과 같이 사회교육,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동물보호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타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동물보호를 다룰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들이 연령대별·과목별 교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교육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가 드러나고, 아동·청소년 동물보호교육의 국가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나 강동구청, 관악구청 등에서도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논의들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보호교육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대규모 동물학대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산업이 자연환경과 인간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결국 인간 사회의 생명감수성과 공존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유네스코(UNESCO)에서는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가치 교육(Values education) 편은 학생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의 사례를 통해 동물권(animal rights)을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 사회 개발(social development)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노력은 동물권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가치들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별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아픔을 느끼며 괴롭히면 싫어한다는 것을 배우고,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관찰이나 역할놀이 등을 통해 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생태의 유기적 연결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중등교육에 이르면 사람들의 소비문화나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연결하여 동물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같은 시민행동에도 관심

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사회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동물복지를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생명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연령대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동물보호교육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책에서는 우선 그에 앞서 학교생활의 전반에서 동물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동물보호 실천은 '동물친화적 학교 만들기'의 중요한 두 측면일 것입니다.

연령대별 동물보호교육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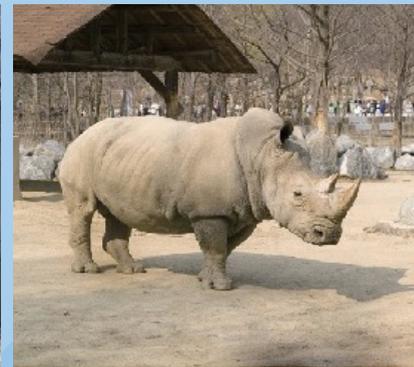
연령대	내용의 예시	관련 동물 문제
유아기 / 3-7세 (유치원, 초동저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생태 • 동물의 지각력 • 동물의 욕구 • 생명에 대한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괴롭힘(학대) •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것
아동기 / 8-11세 (초등고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생태와 능력 • 생태의 유기적 연결성 • 인간의 영향에 대한 책임감 • 동물복지의 개념 • 반려동물 돌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련 문제(유기동물 등) • 야생동물의 포획과 감금 및 상업적 이용 •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와 환경문제 • 동물 학대(방임, 무지, 배려 결여에 의한 학대)
청소년기 / 12-14세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 • 동물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 • 동물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동물을 위한 봉사활동 • 동물복지 관련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 농장동물과 환경문제 • 실험동물 • 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
청년기 / 15-17세 (고등학교 및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위한 시민행동 • 동물을 위한 실천계획 • 동물복지 관련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동물학대(농장동물, 실험동물, 모피동물 등) • 동물을 위한 시민 행동



1. 동물을 존중하는 생태체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은 동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1장에서는 체험학습 장소로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는 장소들 중 하나인 동물원을 중심으로, 동물을 존중하는 대안적인 생태체험을 살펴봅니다.

동물원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원은 만나절짐 둘러보고 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동물원은 삶의 터전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 동물원들은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저마다 필요로 하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동물원의 동물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동물원의 동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이 조성한 인공적인 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필요로 인해 동물을 인공적인 환경으로 데려오게 되었다면, 동물에게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환경 및 충분한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복지'는 비단 동물원뿐 아니라 농장, 승마장, 실험실, 고양이 카페 등등 동물이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영국의 환경운송지역부에서는 「현대 동물원 운영을 위한 국무장관 지침 The 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for Modern Zoo Practice」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동물원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원칙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원칙

• 물과 음식의 제공

영양학적으로 적절히 고려된 먹이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섭식 행동이 나타나도록 유도합니다.

예)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 적당한 환경 제공

각 종이나 개체가 가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코끼리에게 시멘트가 아닌 부드러운 흙으로 된 바닥을 제공합니다.

• 동물 건강관리 제공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동물원 시설을 설계합니다.

• 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생물학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동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행동풍부화'는 이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육장 안에 동굴이나 진흙탕 등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사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먹이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보호

동물원에 살기 때문에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예) 관람객이 동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관람 태도에 대한 교육을 사전 제공합니다.

*동물행동풍부화(animal behavioral enrichment)란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는 동물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이상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야생동물의 원서식지와 유사한 환경, 행동조건, 자극을 제공하여, 동물원 동물들의 정상적인 행동을 다양하게 이끌어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참조: 최혁준(2014),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책공장더불어, 29-31쪽.

● **동물복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혹시 동물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원서식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좁은 우리에 갇힌 채 날마다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동물들에게만 나타나는 이상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정형행동'이라고 불립니다.

정형행동이란 동물이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형행동에는 한 자리를 맴돌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하루 종일 잠자기, 머리카락을 흔들기, 깃털을 뽑는 등 자학하기와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능이 높거나 인공적인 환경으로는 고유의 습성을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동물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정형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의 정형행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 사육장 안에 동굴이나 진흙탕 등 새로운 구조물 제공하기, ▲ 먹이 제공 방식에 변화 주기, ▲ 다른 개체나 다른 종을 만나게 하여 사회성 길러주기, ▲ 새로운 냄새나 새로운 소리를 접하게 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동물에게 '최고의 동물원'이란 없다!**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넓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동물들이 동물원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광대한 공간을 헤엄치는 돌고래,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코끼리, 동료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오랑우탄, 영하 40도의 겨울을 나는 북극곰처럼, 모든 동물은 저마다 고유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습성은 자연환경에서만 온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험동물원', '생태체험전', '생태학교' 등의 이름으로 동물을 볼 뿐 아니라 직접 만질 수 있는 형태의 동물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체험동물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칠라를 어깨에 올리거나 뱀을 목에 두르는 체험을 할 때, 동물은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끊임없이 옮겨지며 때로는 잡아당겨지거나 힘으로 제압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살 만지거나 부드럽게 어루만져도 동물원의 동물은 사람의 손길을 기분 좋은 쓰다듬음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손길로 경험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은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체험동물원은 학생들에게 동물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동물을 만져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한 달 단기 알바를 구하던 중 동물체험전을 알게 되었다. 동물을 좋아하는 나와 잘 맞고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하였다.

(...) 처음 한 팀(어린이집 단체)을 가이드 한 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가이드는 체험을 도와주면서 그 동물의 생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들은 설명에는 관심이 없고 만지고 싶다는 말만 한다.

그제서야 그동안 안보였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들은 좁은 곳에 갇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다가가면 경기를 일으키고, 동물 몸에 털이 빠져 땀병이 생겼고, 거북들은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체험전의 실태가 보였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동물학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양해 구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_ 2017 동물체험전 아르바이트생의 수기 중



출처: 안동 곤충파충류 체험전 <https://goo.gl/4UEuDH>(*위 수기와 관련 없는 이미지)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는 무려 29년간 진행해왔던 돌고래쇼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포획되어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해왔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는 비슷한 처지였던 돌고래 친구들인 춘삼, 삼팔과 함께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더 많은 돌고래들을 고향으로 보내주고자 했던 사람들의 염원이 모여, 태산, 복순, 금등과 대포까지 지금까지 총 일곱 마리의 돌고래들이 방류될 수 있었습니다. 동물에게 ‘최고의 동물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넓은 바다, 광대한 초원, 나무가 우거진 숲속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동물은 사람 곁이 아니라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완전 방사 이전, 제주 앞바다에 있는 제돌이의 모습

● **동물을 존중하는 동물원 체험, 이렇게 해요!**

동물을 단순히 보고 만지는 것을 넘어서, 동물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동물원 체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안적인 방식으로 동물원을 체험한다면 동물원의 동물복지보다 향상시킬 뿐 아니라 관람객인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기 전에,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할 때

- ☑ 체험학습 장소 선정 시 '동물복지' 요소를 고려한다.
- ☑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여 동물복지 실현 정도를 평가한다.
 - 동물들이 건강해 보이는가?
 - 동물원 환경이 동물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쇼가 운영되지는 않는가?

동물원에 가기 전에

- ☑ 각 동물종의 고유한 습성을 미리 학습한다.
- ☑ 동물원의 동물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 ☑ 동물원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지 함께 이야기한다.
 - 이 동물은 꼭 동물원에 있어야 하는가?
 - 공간 - 충분히 넓은가? 바닥이 딱딱하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동물이 기어오르거나 놀 만한 시설이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기후 - 햇빛, 습기, 기온 등 동물의 습성에 적당한 기후가 보장되는가? 더위나 추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가?
 - 건강 - 동물이 건강해 보이는가? 정형행동을 보이지는 않는가?
- ☑ 동물원에 관련된 최근의 사회 현상을 주제로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
 - 보다 동물복지가 잘 실현되는 외국의 동물원, 생츄어리(야생동물 보호소)는 어떤 모습인가?
 - 2013년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 폐지와 제돌이 방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동물원에 가면

☑ 아래와 같은 행동지침 및 주의사항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 음식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 만질 수 있더라도 만지지 않는다.
- 관심을 끌기 위해 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쇼를 관람하지 않는다.
- 동물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 책임자에게 항의한다.

더 찾아 보기

◆ 책

- 로브 레이들로(2014),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책공장더불어.
- 최혁준(2014),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책공장더불어.

◆ 기사

- (서울신문, 2014) <동물박사가 들려주는 동물이야기>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귀향 29년 돌고래쇼 막 내린 제돌이 친구들에겐 자유를 선물했다 <https://goo.gl/B1MMwM>
- (경향신문, 2015) [김산하의 야생학교] 교감? 강요된 스킨십! <https://goo.gl/DakZV5>
- (매일일보, 2017)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 체험동물원 변화하라" - 국회 기자회견 열어 쥬쥬동물원과 공방에서 최종 승소 보고 <https://goo.gl/EVMSCS>

◆ 영상

- (jtb, 2015) 『jtb 뉴스』, 무분별한 동물판매 논란.. 서울대공원 "재검토할 것" <https://goo.gl/BrVjA2>
- (MBC, 2017) 『MBC 스페셜』, "쇼 돌고래의 슬픈 진실" 편. <https://goo.gl/cCFjeS>
- (EBS, 2013) 『하나뿐인 지구』,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편. <https://goo.gl/umt6o8>
- (EBS, 2014) 『하나뿐인 지구』, "동물원 월요병" 편. <https://goo.gl/vx33wX>

◆ 게시물

- (카라, 2017) "동물을 마음껏 만지는" 생태체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449>
- (카라, 2015) 서울대공원 전시동물 매각 문제, 체험동물원의 잉여 동물들.. 결국 어디로 갈까요? <https://www.ekara.org/activity/policy/read/6661>
- (카라, 2017) 제주 남방큰돌고래 금등·대포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wild/read/8905>



2.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과 물건은 동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2장에서 는 급식, 청소용 세제류, 학생들이 매일 입고 사용하는 의류·패션소품 및 화장품·샤워 용품을 중심으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급식

더 이상 고기가 귀하거나 값비싼 음식이 아니게 되면서, 우리는 거의 매 끼니에 고기가 들어간 반찬을 먹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고기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곁들 인 반찬이 많이 제공됩니다. 고기가 귀했던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거나,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어왔는데, 왜 그들은 굳이 채식 을 주장하는 걸까요? 흔히 채식의 필요성은 비만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 때문에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단은 다음과 같이 훨씬 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기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의 식량을 가축에게 사료로 먹인 다. 1파운드(0.45kg)의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 하기 위해 송아지는 21파운드(9.53kg)의 식물 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1 년에 10퍼센트만 고기 소비를 줄여 도 6,000만 인구 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삼림 파괴 지난 25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열 대우림의 거의 절반이 소를 키우 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벌목되었다.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하는 숲이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 가스의 51% 이상을 배출한다(월드워치연구 소, 2009).

건강 위협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여 생긴 내 성균, 잘못된 살충제 사용으로 인 한 독성 물질이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산유촉진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 여 생산된 축산물을 먹으면 사람에게도 여러 질병이 야기될 수 있다.

물 부족 1파운드(0.45kg)의 소고기를 생산 하기 위해서는 약 9,464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1파운드의 밀 생산에 필요한 물 양의 50배이다.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가축의 배설물은 땅 이 충분히 분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어 땅을 썩게 만들고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식 축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량을 얻기 위해 잔인한 감금틀 사육 방식을 사용한다. 돼지는 몸을 돌릴 수조차 없 는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며, 닭에게는 마리 당 A4용지 2/3 크기의 공간이 주어진다. 이처럼 고밀도 사육 시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을 막 기 어려우며, 한국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4 천만 마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참조: 피터 싱어(2012), 『동물 해방』, 연암서가.

채식주의자들은 지나친 육식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를 비롯하여 생선, 계란,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먹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는 일, 상당수의 메뉴에 고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채식의 종류 중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기도 합니다.

Vegetarian 채식주의자		Semi Vegetarian 반(半) 채식주의자	
Vegan 비건 완전 채식	Lacto 락토 ○ 우유, 유제품 X 달걀, 생선, 해물	Pesco 페스코 ○ 달걀, 우유, 어류 X 조류, 붉은 살코기	Pollo 폴로 ○ 달걀, 우유, 어류, 조류 X 붉은 살코기
Ovo 오보 ○ 달걀 X 우유, 유제품, 생선, 해물	Lacto Ovo 락토 오보 ○ 달걀, 우유, 유제품 X 생선, 해물	Flexitarian 플렉시테리안 평소엔 Vegan, 상황에 따라 육식 가능	

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급식의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안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기가 들어간 반찬의 가짓수 줄이기

고기가 없는 채식 반찬을 한 가지라도 제공하면 고기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채식을 원하거나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축산물 구매하기

동물복지형 농장은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으며, 동물이 가진 최소한의 욕구를 존중합니다. 축산 과정에서 동물학대 요소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배터리 케이지(닭)와 임신스톨(돼지) 등의



감금틀을 사용하지 않으며,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마크를 확인해주세요!

● 우유 급식에 다양한 음료를 추가하기

우유 급식을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두유나 과채음료 등 몸에 좋은 다른 음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농장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더 좋은 간식이 됩니다.



● 고기 없는 복날 만들기

평생을 고통 받으며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는 대신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채식 보양식을 제공합니다. 영양분을 듬뿍 담은 친환경적인 음식은 '복날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매년 복날 이벤트를 위해 수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온 관행을 멈추는 데 기여합니다.



부리채소스프

된장가지뎃밥

채개장

● 생활용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상당수가 동물실험이나 동물학대를 통해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장품의 경우, 쥐나 토끼 등을 대상으로 피부·안구에 자극을 주는지, 먹었을 때 독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합니다. 시험물질을 동물의 피부에 바르거나 강제로 먹이거나 안구에 투여해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들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피부염증,

궤양, 출혈, 경련, 실명, 발작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실험은 그 비윤리성과 비과학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가령 동물의 몸과 사람의 몸은 그 구성체계와 반응의 측면에서 서로 매우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문제를 일으켰던 물질이 사람에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반대로 동물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물질이 사람에게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수천 가지 원료를 알고 있으며, 자연에서 추출한 순한 원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5년 12월 한국에서도 동물실험 금지조항이 추가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2월부터 적용되어, 이제 한국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7개의 예외 조항이 남아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상한 100만원에 불과한 점은 해당 법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영역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동물실험·동물학대를 하거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물품들은 아직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힘이 모일 때, 동물을 위한 변화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물품을 동물친화적인 것으로 마련하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해보세요!

청소용 세제류

세탁세제, 주방세제, 곰팡이제거제, 탈취제 등의 청소용 세제류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동물실험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순하고 자연적인 원료로 이루어진 제품을 사용한다면 동물·환경에 좋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EM용액 등의 천연 세제류를 활용해보세요!

의류·패션소품

솜이나 인조털·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물의 털(오리, 거위 등), 모피(토끼, 여우, 라쿤 등), 가죽(소, 악어, 뱀 등)을 사용한 옷과 패션소품이 훨씬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 의류 기술이나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동물의 털·모피·가죽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뜻하고 멋스러울 수 있습니다.

화장품·사워용품

한국에서도 2015년 12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자체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중국에 여전히 많은 국내 회사들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이나 우유, 달팽이 점액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도 국내에서 많이 판매됩니다. ①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②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③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카라의 착한회사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라의 착한회사 리스트 (17.09.27 기준)

동물실험 안함 동물성원료 없음 중국수출 안함 ★★★	청소용품	에코라운드ECO ROUND / 온시아onsiya / 라브르베르L'arbrevert / 스테디스테이트steady-state
	화장품 사워용품	다자연allNATURE / 바이허브Byherb / 스킨큐어Skincare / 세븐드롭스Sevendrops / 아로마티카aromatica / 아이다코스메틱AidaCosmetic / 에이트루A-true / 트리앤씨Treeannsea / 해밀리아Haemilia / 에버레인Everain / 코스리스Coslys / 슈가스트립이즈Sugarstripeace / 베베셀Bebecell / 위드마이withmy / 뷰티클로Beautiqlo / 베베스킨코리아bebeskin / 더:순수The soonsoo / 라브르베르L'arbrevert / 아이샤드ishard / 아카데미Acmer / 시슨드시Siseundeusi / 마스크컴퍼니maskacompany
동물실험 안함 중국수출 안함 ★★★	화장품 사워용품	엔엠씨NMC / 이즈앤트리Isntree / 시드몰Sidmool / 자연의 벗NATURE's FRIEND / 뷰티레시피Beauty Recipe / 비욘드Beyond / 스킨아이Ski-neye / 스킨와치스Skin Watchers / 보나쥬르Bonajour / 디어,클레어스Dear,Klairs / 닥터브로너스Dr.Bronner's / 러쉬Lush / 나블러스Nablus Soap / 로고나코리아Logona / 앤트리&tree / 록키스Rokkiss / 제스JATH
동물실험 안함 동물성원료 없음 ★★★	화장품 사워용품	얼스레시피Earth's Recipe / HALF MOON EYES

저는 요즘 착한 소비를 행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특히 동물을 위한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 실험이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끼들은 이유도 모르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박스에 갇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화학 물질에 시력을 잃어가며, 곧 엄마가 될 수 있었던 토끼와 기니피그의 뱃속의 아기는 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단지 우리의 몇 시간의 기쁨을 위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실험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착한 소비를 시작하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잔인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민 (대○중학교 3학년)

역사책을 보면 우리의 옛 조상님들은 소, 돼지 등의 동물을 죽일 때 필요한 만큼만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고, 죽이고 나면 고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상을 차려 그들을 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은 생활 속에서도 배고픈 동물들에게 조금씩 양보해 먹이를 주기도 했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며 동물들을 서로 배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 필요하지도 않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물들을 가둬놓고 축진제, 성장제 등을 맞추는가 하면 더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마취를 안 하고 거세를 하는 등의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 모피로 만들기도 하고, 여가와 취미를 위해 오랫동안 동물들이 거처로 삼아온 공간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는 등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는 인생에서 20년 정도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이 시간을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사회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학교가 바뀌고 교육이 함께 해줘야 합니다.

설아 (동○중학교 3학년)

나는 여러 매체를 접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농장동물 삶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고, 농장동물의 삶이 내게 하나의 딜레마로 다가와 많은 생각을 안겨 주었다. 과연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 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중학교 재학 중 '락토 오보 채식'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도 이어져 현재(고등학교 2학년)는 비건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 많은 친구들이 음식을 참는 게 가장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 왔지만, 사실 채식을 하면서 음식을 참는 것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학교 급식이었다. [학교와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학교 급식에서 고기의 비율을 줄이지 않더라도 농장동

물의 복지를 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가 인증제도'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동물의 스트레스는 곧 그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비좁은 뜰에서 사료를 먹고 항생제를 맞으며 사육된 동물과, 넓은 풀밭과 본래 습성다운 환경에서 자란 동물이 도축되었을 때, 두 고기의 품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분명합니다. (...) 많은 학교는 현실적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변화를 결심하는 학교와 학생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급식에서 육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차선책으로 위와 같은 제도의 힘을 빌리는 것도 농장동물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주희 (동○고등학교 1학년)

더
찾아
보기

◆ 웹페이지

- "공장 대신 농장을!" 캠페인 www.stopfactoryfarming.kr
- '고기없는월요일' 캠페인 <https://www.facebook.com/mfmkorea/>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처] <https://goo.gl/gKkJp1>

◆ 책

- 고미송(2011), 『채식주의를 넘어서』, 푸른사상.
- 멜라이 조이(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 육식주의를 해부한다』, 모멘토.
- 피터 싱어(2012), 『동물 해방』, 연암서가.

◆ 기사

- (연합뉴스, 2017) [카드뉴스] 동동하게, 더 동동하게... '비만 여우'의 눈물 <https://goo.gl/j748Vb>
- (프레시안, 2017) A4 닭장에 닭 세 마리? 동물에게도 천부적 권리가 있다! - '살충제 계란' 사태 경고한 고전 <동물의 권리> <https://goo.gl/BDtuAh>
- (한겨레, 2017) "2020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신규 진입 금지해야" - '살충제 달걀' 동물단체들 내놓은 해법은? <https://goo.gl/1TPywp>

◆ 영상

- 봉준호(2017), 「옥자」, 넷플릭스 외 3사.
- 황윤(2015), 「잡식가족의 딜레마」, 시네마달, 스튜디오 두마.
- (MBC, 2011) 「MBC 스페셜, "고기없는소다"편. <https://goo.gl/88936Y>
- (카라, 2017) "농장 대신 공장을!" 캠페인 공식 동영상 <https://goo.gl/sK8PYH>
- (카라, 2017) [Meat Free 복날!]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 레시피 영상모음 <https://goo.gl/c29bnE>

◆ 게시물

- 카라 [착한회사 리스트] <https://ekara.org/activity/use/read/7173>
- 김보경(2017), 「살충제의 비극, 임탁에게 마당을 허하라」, 동그람이. <https://goo.gl/WFm9jw>



3. 우리 곁의 동물들

동물은 먼 바다와 숲, 초원에서 살아가지만 도시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특히 길고양이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주거지역 곳곳에 살고 있어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곤충과 소동물은 학교의 운동장처럼, 도시 안에서 흙과 나무가 있는 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동물 존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길고양이

사람의 편리만을 위해 조성한 도시 환경에서 길고양이는 먹이를 구하거나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흙과 나무가 있으며 자동차가 다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인 교정은 길고양이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교정 한편에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마련하거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학생들은 배려와 상호 돌봄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길고양이를 돕거나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먹이와 물 제공

-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활동하는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먹이와 물을 놓아줍니다.
- 사람의 음식이 아닌 고양이용 사료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급식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합니다.
- 위험한 사람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와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TNR (포획-중성화 수술-제자리 방사)

길고양이는 굶주림, 질병, 더위와 추위, 은신처와 배변장소의 부족, 로드킬, 인간의 학대 등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특히 길 위의 임신·출산은 어미 고양이에겐 버거운 일이며 새끼 고양이들도 길 위에서는 안전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중성화 수술 없이 밥만 준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방사하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정기 울음소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성화가 완료된 길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살짝 잘라 표시합니다.)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두고 2-5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도 먹이 활동을 나갑니다. 새끼 고양이의 눈과 코 주변이 깔끔하고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해 보인다면 어미 고양이가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함부로 만져서 사람의 체취가 묻으면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이 새끼 주변에 계속 머무르면 어미가 새끼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대지 않고 멀리에서 지켜보다가, 어미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구조하여 입양을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양이는 각인기를 가지는 동물로서 2주에서 8주령 사이에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지면 평생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새끼일 때 돌봐주었다면 이후 방사 시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으므로 사람에게 입양 보내야 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고양이는 구조하여 치료를 해주고, 고양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제자리에 방사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교정 안의 동물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전인 교정은 여러 곤충과 동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동물단체 RSPCA는 학교 운동장에 여러 곤충이 살고 그 서식지가 지정된다면 교실에서 곤충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자연 속의 곤충을 관찰하면서 생물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정 안의 동물과 동물 서식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크든 작든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동물을 존중합니다.
-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 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물건을 던져 괴롭히지 않습니다.
-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닐이나 유리조각 등 쓰레기 없이 깨끗한 교정을 만듭니다.
- 녹지를 조성하고 보존하여 동물친화적인 교정을 만듭니다.
- 야생 동식물과 접촉한 경우,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길고양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제 친구들 중 한 명이 학교 길고양이들에게 가끔씩 사료나 참치캔 같은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길고양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학교와 동네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가연 (안○고등학교 2학년)

길을 걷다보면 방향하고 있는 동물들을 볼 때가 참 많아. 특히 집 주변엔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가끔 용돈이 남는 날엔 소시지를 사서 주기도 해. 그러다 문득 '구조'를 생각해봐. 하지만 구조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

(...) 동물에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구조를 꿈꿔봤을 거야. 나도 그랬고. 당장 눈앞의 동물이 불쌍하고 배고파보여서 얼른 구조하고 싶어. 하지만 그 후의 일은 생각해본 적 있니? (...) 구조란 건 쉽지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거든. 구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구조의 순간에 눈앞의 보들보들한 생명에 이성을 잃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해.

(...)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임신한 길냥이가 있는데 너무 살갑다고 어떡하냐는 전화였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임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더라. 구조하고 싶었어. 보통 길냥이라면 구조하지 않는 게 예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냥이는 구조해야 할 것만 같았어. 결국 난 구조를 했고, 길냥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 건강검진 비용은 괜찮아. 그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거든. 그런데 아뿔싸, 우리 집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난리 치실 게 뻔하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하며 겨우 임시보호 해줄 곳을 찾아냈지만 나는 길냥이와 그녀의 아가들을 입양시키는 데 대략 6개월 넘게 걸렸어. 그 사이에 한 아가는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내가 쉽사리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방법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이후로 내가 생각하는 구조의 범위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 이 글을 읽음으로써 나같이 후회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희경 (영○여자고등학교 3학년)

◆ **웹페이지**

- 한국고양이보호협회 <http://www.catcare.or.kr/>
-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http://cafe.naver.com/ilovecat>
- 카라 [자주 묻는 질문: 길고양이 보호:TNR] <https://www.ekara.org/report/faq>

◆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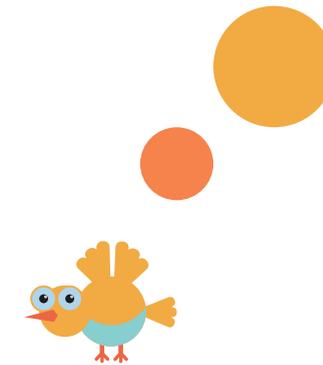
- 팜 존슨 베넷(2017), 『고양이처럼 생각하기: 행동학에서 본 고양이 양육 대백과』, 페티앙북스.

◆ **영상**

- (EBS, 2015) 「하나뿐인 지구, "고양이는 버려도 되나요?"편. <https://goo.gl/AxR4aq>

◆ **게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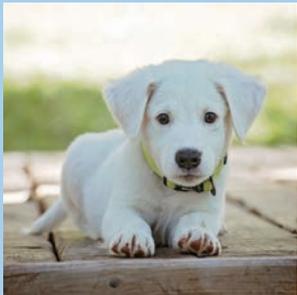
- (카라, 2012) 집비둘기의 성급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반대한다 <https://www.ekara.org/report/press/read/47>
- (카라, 2016) 카라의 길고양이 급식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cat/read/7360>
- (카라, 2016) 길고양이 겨울나기 쉼터공방, 모두 모여요~!! <https://www.ekara.org/activity/cat/read/7856>
- (카라, 2016) 더 쉬운 길고양이 겨울 생명수 보급 <https://www.ekara.org/activity/cat/read/7139>
- (카라, 2017) '대학 길고양이 돌봄사업' 협약식 <https://www.ekara.org/activity/cat/read/8417>





4. 반려동물 돌봄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다양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펫숍의 유리창 너머로 귀여운 아기 동물을 보면 당장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데려온다면 사람도 동물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우리가 생각해보거나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요!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돌봄은 어쩌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이 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개와 고양이는 평균 15살까지 살며, 길게는 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이 스스로 밥을 찾아 먹거나 화장실을 치우기 어려우므로, 여행이나 출장 시 1-2일 이상 집을 비우기 어렵습니다. 동물도 나이가 들면 관절염, 치매, 난청, 시력 소실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료, 간식, 모래나 배변패드, 집과 장난감을 구매하는 비용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각종 진료와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과 함께 놀아주고, 산책하고, 더 자주 집을 청소하는 데 예전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반려동물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해주세요.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나의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모든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화를 통해 역할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때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을 살리는 선택, 입양**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펫숍에서의 구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리고 작은 동물이 선호되므로, 펫숍에서는 출생 후 2-3개월밖에 안 된 아기 동물을 판매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미와 일찍 분리된 아기 동물은 어미의 모유를 통해 항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면역체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반려동물에 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 중에는 반려동물 구입 직후 폐사, 질병 발생 등 '품질 상 문제'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열악한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반복하는 어미 동물들, 어린 나이에 판매를 위해 어미로부터 분리되는 아기 동물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미 및 형제들과의 이른 분리는 어린 시절에 꼭 필요한 사회화를 방해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펫숍에 전시된 어린 강아지와 강아지 공장의 어미 개 _ 출처: (EBS, 2015) 「하나뿐인 지구,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편

두 번째 방법은 흔히 말하는 '**가정 분양**' 또는 '**브리더 분양**'입니다. '가정 분양'이란 다른 가정의 반려동물이 낳은 새끼들을 유·무상으로 분양받는 것을 말하며, '브리더 분양'이란 특정한 품종을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인 브리더로부터 유상으로 분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분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펫숍처럼 번식장에서 동물을 데려와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정 분양과 브리더 분양은 동물의 교배·임신·출산 과정을 상업화하며 인간의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동물을 늘린다는 점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죽음의 기로에 선 동물을 살리는 선택인 **유기동물 및 구조동물의 입양**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안락사**'입니다. 유기되거나 구조된 후 갈 곳 없는 동물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는 것입니다. 입양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며, 동물의 상업적 생산-유통-도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 후기	후원/나눔
	참여(난이)지리산 가을여행 갔다왔어요
	연남이랑 민준이 근황!! (2016년)
	2012년 수원 공공이네 슬라

더보기 +



코식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참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어디에서 입양할 수 있나요?

- **동물보호 시민단체**
동물을 구조하여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각 단체의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카라에서도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 온라인 카페**
일반 시민들이 유기견, 길고양이 등을 구조하여 입양을 보내는 온라인 카페에는 매일 새로운 입양 홍보 글이 올라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시보호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 운영 중이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한 시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10일의 보호 기간(서울시는 20일)이 지나면 안락사 되므로 이곳에서 입양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animal.go.kr]
- **사설 보호소**
정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로, 재정이 빈약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Q&A**

Q. 중성화 수술은 왜 필요한가요?

A. 중성화 수술이란 수컷의 고환이나 암컷의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컷의 경우에는 유실, 실내에서의 마킹, 고환 및 전립선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암컷의 경우에는 유선종양과 자궁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성화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반려동물의 임신 예방함으로써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과 행동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동물이 첫 발정을 경험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보호자를 신속하게 찾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실이나 사망 시 같은 기관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동물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③ 인식표 부착 등이 있습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Q. 종합검진은 얼마나 자주 해줘야 하나요?

A. 종합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질병이 있다면 초기 상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별다른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 종합검진이 필요합니다. 성견/성묘가 된 이후에는 최소 2년에 한 번, 노화가 시작된 이후 (소형견 8살/대형견 6살/고양이 10살)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찾아 보기

◆ **웹페이지**

- 카라 [입양하기] <https://www.ekara.org/parttake/adopt>
- 카라 [입양후기] <https://www.ekara.org/parttake/review>
- 카라 [자주 묻는 질문: 동물입양] <https://www.ekara.org/report/faq>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 <https://goo.gl/NZ2RXR>
- 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교육칼럼' <https://goo.gl/38wTCf>

◆ **책**

- 황철용(2016), 『우리 아이가 아파요! 개고양이 필수 건강 백과, 책공장더불어.』
- 로브 레이들로(2014), 『개에게 인간은 친구일까?: 사랑하고 학대하고 보호하는 개와 인간의 이야기』, 책공장더불어.
- 김정희(2014), 『햄스터: 햄스터를 사랑한 수의사의 햄스터 행복·건강 교과서』, 책공장더불어.

◆ **영상**

- (EBS, 2015) 『하나뿐인 지구,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편.』 <https://goo.gl/Qe8uDD>
- (EBS, 2015) 『하나뿐인 지구,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 편.』 <https://goo.gl/4A3gDe>
- (카라, 2016)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동물등록,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 영상』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8018>

◆ **게시글**

-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 완결판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4485>
- (카라, 2015) '생명'이 아닌 '번식기계'로 살아온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실래요?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6118>
- (카라, 2016) 우리는 강아지 공장(번식장)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https://www.ekara.org/activity/mate/read/7456>



5. 야생동물 존중

야생동물이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과 달리, 인간에게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원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인간의 수많은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5장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사람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멸종 위기 동물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회의에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사이테스(CITES)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사이테스 협약이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현재 183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58차 UN총회에서는 해당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세계야생동식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멸종 위험이 높은 동식물을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일곱

REDLIST

- EX** Extinct 절멸
- EW** Extinct in the Wild 야생절멸
- RE** Regionally Extinct 지역절멸
- CR** Critically Endangered 위급
- EN** Endangered 위기
- VU** Vulnerable 취약
- NT** Near Threatened 준위협
- LC** Least Concern 관심대상

단계로 구분해놓은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현재 리스트에 등재된 8만 7919종 가운데 2만 5062종이 심각한 멸종 위기(CR+EN+VU)에 처해 있습니다(IUCN Red List version 2017-2). 그리고 인간의 여러 행위들, 가령 농경·벌목에 따른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자원·에너지의 과다 사용, 불법 포획을 통한 희귀동물 소유 및 전시 등은 야생동물의 멸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멸종되어가는 야생동물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야생동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거나 귀엽다는 이유로, 키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나 호기심으로 희귀한 야생동물을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야생동물을 해치지 않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야생동물의 뿔이나 가죽 등 특정한 신체부위로 만든 음식·의류·소품 등을 구매한다면



카라 건물 앞에 유기된 멸종위기종 '슬로우로리스'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과 잔혹한 죽음을, 궁극적으로 멸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사용하는 물품이나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구매할 때,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종이컵·비닐 등 일회용품의 사용, 물·전기·가스 등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는 숲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숲이나 극지방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텀블러 갖고 다니기,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컴퓨터 끄기 등을 평소에 잘 실천한다면 야생동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구조**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목표들 중 하나는 자신의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은 사람뿐 아니라 다치거나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등하굣길에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동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에서 위기 동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준다면, 동물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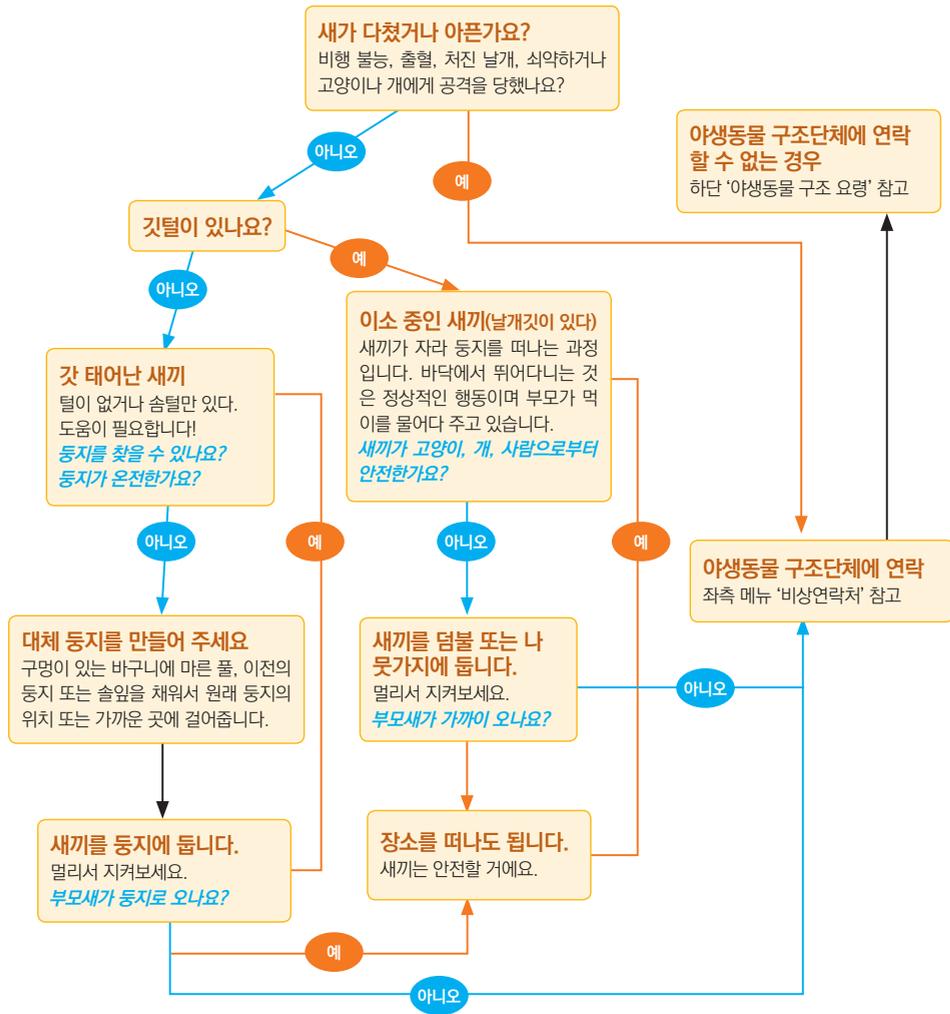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지 먼저 파악해야 하듯,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물과 먹이만 있어도 길 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에게 필요한 도움은 사람의 집으로 데려가는 '구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급식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등지 바깥에 떨어진 어린 새가 있다면, 새가 다치지 않은 이상 사람의 집이나 병원으로 데려가기보다는 주변의 동지를 찾아 넣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크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사람의 즉각적인 구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동물과 주변 지형을 사진 찍어 기록해두고, 장갑 등을 이용해 구조자 본인을 보호한 뒤 아래와 같이 구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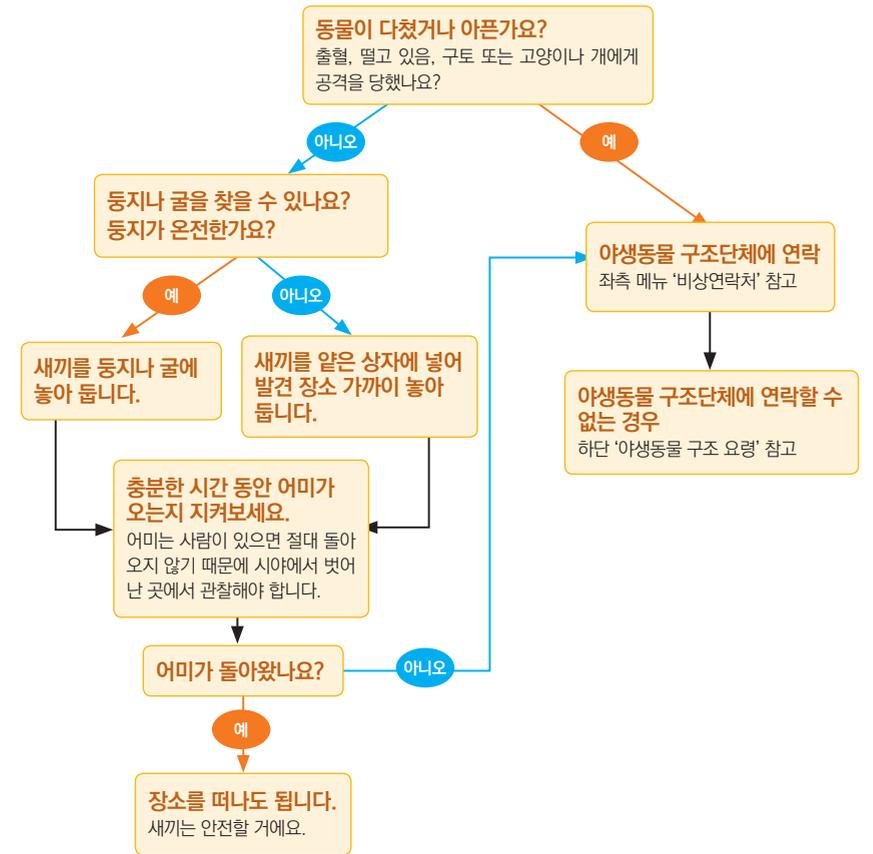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전국 관할 지역별로 1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조센터에 연락하여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조센터에서는 조류 등 일반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동물도 구조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주말에도 운영되는 구조센터가 있지만, 많은 경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상담 및 구조 업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구조센터에 연락하기 어렵다면 각 지자체의 당직실에 동물의 임시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이 다친 경우에는 선불리 물과 먹이를 주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물과 먹이를 주기 전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조센터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임시보호 할 때는 철망이 아닌 이동장이나 공기 구멍을 뚫은 박스에 넣어 이동하고,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장소에 놓아주며, 적정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어린 새 발견 시 대처 사항



어린 포유류 발견 시 대처 사항



어린 야생동물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미의 보살핌입니다.

야생에서 어미와 새끼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유류의 경우,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주변에 나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어미가 새끼에게 오지 못하고 주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끼가 다친 것이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 동안 멀리서 지켜본 후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을 집에서 키우면 부적절한 사육환경으로 대부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각인된 야생동물은 사람을 겁내지 않게 되어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반대로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방생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따라서 야생동물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영카라의
동물사랑
수기

여러분들은 야생동물 사진작가가 전시해둔 사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름답다? 신비롭다?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 모든 야생동물 사진작가님들은 당연히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몇몇의 사진작가님들은 오직 자신의 사진이 잘 나오기만을 바라며 찍고, 오로지 자신의 멋진 사진 외엔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남들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에 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결국 뿔논병아리의 알은 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 천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정한 둥지 근처의 나뭇가지들을 잘라버린다든지, 새들이 단체로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고향을 지르거나 뛰어가 놀라게 해서 억지로 날게 하는 등, 보이지 않게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조용히, 그리고 집중해서 그들을 살펴봐주세요. 사진들 속 동물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나요?

설아 (동○중학교 3학년)

더
찾아
보기

◆ 웹페이지

- 카라 [시민구조지원] <https://www.ekara.org/activity/crisis>
- 서울시야생동물센터 <http://www.seoulwildlifecenter.or.kr/>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http://cnwarc.wixsite.com/main>

◆ 책

-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의학실, 『야생동물병원24시: 인간과 야생동물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책공장더불어.

◆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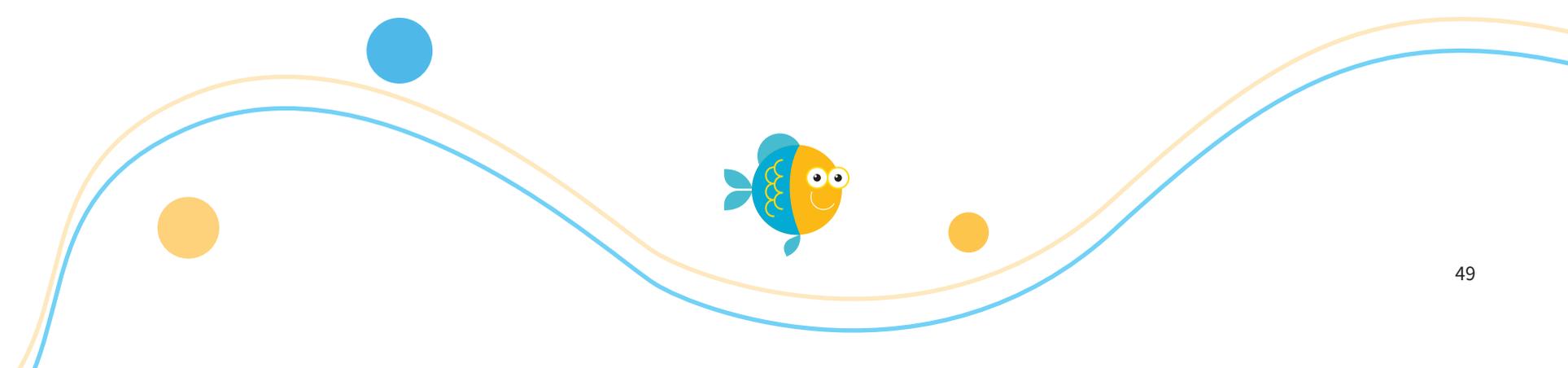
- (환경일보, 2017)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가 아닙니다 <https://goo.gl/DJkRXz>
- (월간 Begun, 2013) 반달가슴곰의 눈물: 쓸개즙 채취 <https://goo.gl/1GbuJR>

◆ 영상

- (Vegemag, 2014) 50년 간 고문당했던 코끼리 라주의 해방 <https://goo.gl/UZyMLj>

◆ 게시물

- (카라, 2017) Real Elephant Project '진짜 코끼리'를 아시나요? <https://www.ekara.org/activity/wild/read/8960>
- (카라, 2016) 멸종위기종 CITES 1급 슬로우로리스 유기 사건 <https://www.ekara.org/activity/wild/read/7570>
- (카라, 2016) 모두 같은 야생동물 아닌가요? -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의 이야기 <https://www.ekara.org/activity/wild/read/7238>
- (카라, 2015) 희귀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육 부추긴 MBC 세바퀴로부터 살펴본 동물방송의 문제 <https://www.ekara.org/activity/wild/read/5982>





6. 동물사육과 생명에 대한 책임

일부 학교에서는 교정에 사육장을 설치해 토끼나 닭 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곤충 채집, 개구리 알 부화 등을 숙제로 내주거나, 교실에 작은 사육장을 마련해 개미, 개구리, 장수풍뎅이 등을 키우기도 할 것입니다.

교내 동물사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때로는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동물을 접하고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에는 교내 동물사육만이 있을까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교는 동물에게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동물에게 시끄럽고 무서운 곳이거나, 고유의 습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동물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배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에듀동아 <https://goo.gl/YtLYZj>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동물을 사육하고자 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물 사육에 적합한 환경과 동물의 수명 및 생로병사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돌봐줄 1인 이상의 책임자가 확실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돌봄은 학교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내 동물사육 시 고려사항

-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고 위생적인 물과 음식
- 각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
- 정상적 행동을 발현할 기회
- 다른 동물과 함께 혹은 떨어져 지내고자 하는 욕구
- 시선 및 공포로부터의 보호
- 동물의 생로병사에 관한 예산
- 책임자들 간 적절한 역할 분배
-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학생 대상 교육
- 명절연휴 등 장기연휴 기간의 관리
- 동물의 죽음 이후의 관리
- 학생들의 동물 털 알레르기,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참조: RSPCA 교육자료(www.rspca.org.uk/education)

이처럼 교내 동물사육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교내에서 동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교육은 여러 대안적인 방법들, 가령 ▲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보여주기, ▲ 교실에 동물 관련 책 구비하기, ▲ 학교 운동장에 자연적인 곤충 서식지 조성하기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카라의 동물사랑 수기

요즘은 학교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한창 자라는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동물에 대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귀여운 외모나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동물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반려가 아닌 '애완'동물로 길러진다. (...)

학교에서 이구아나나 거북이가 길러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구아나는 199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되었는데, 저렴한 분양가와 작은 새끼의 크기만 보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구아나는 사람을 물 수 있고, 식단도 일일이 짜서 골고루 먹여야 하고, 일광욕도 제대로 못하면 MBD라는 질병에 걸린다. 크기는 수컷이 최대 1.2~1.5m이다. (...) 이렇게 준비와 지식이 많이 필요한 동물을 작다고 교실 안에서 기른다면, 최대 20년의 수명인 이구아나는 후에 누가 맡아 책임질 것인가? 거북이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동물이라고 본다. (...)

사육장 청소라도 학생들이 돌아가며 맡을 수 있다면 효과적이겠지만, 대부분 선생님이나 학부 모님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학생들의 협조적인 자세와 좋은 환경, 책임감을 갖고 키운다면 모를까, 내 아이와 학생들이 호기심을 위해 동물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희 (역·중학교 3학년)

더 찾아보기

◆ 웹페이지

- 동물책만 내는 구멍가게 1인출판사 [책공장더불어]
포스트: <http://post.naver.com/my.nhn?memberNo=830500>
블로그: <http://blog.naver.com/animalbook>

◆ 기사글

- (카라, 2012) 인천 신송초등학교 동물체험학습장 사육환경에 대한 제보 및 카라의 사육환경 개선 요구
<https://www.ekara.org/report/ekara/read/421>



7.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과 생명존중

살아있는 개구리나 붕어를 해부하는 수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놀란 시민들의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특히 몇몇 학부모님들은 고통받는 동물이 안쓰럽고, 자녀가 동물을 쉽게 희생시키는 잔인함을 배우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생체실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부실험으로 무려 11만 5324마리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나 과학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해부실험은 종종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마취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고 해부에도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서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 중에도 해부실험에 두려움이나 충격을 느끼고 실습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그저 수업을 빠지거나 동아리를 탈퇴하는 선택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2011년 8월 한국에서는 동물실험의 규모와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법적, 제도적으로 동물의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에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들

-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대학생 미만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동물해부실험 금지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카타로니아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하며, 관련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동물해부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대만
중학생 이하 학생들의 동물해부실험 금지
- 영국
대학생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동물에게 통증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 미국
워싱턴DC 등 19개 주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이 동물해부를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뉴질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인도(라자스탄주) 등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을 금지하거나 부분적 금지

위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아직까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만큼, 학교나 사설학원에서 과학·생물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를 접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동물해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 동물해부실험은 이벤트?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과 과학능력척도(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에 따르면, 학생들이 생물학 시간에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들은 세포, 유전, 배설과 에너지 순환, 기관의 작동, 생명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진화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데 해부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나 참관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해부실험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해부실험이 비판적 사고나 과학적 논증력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부실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해부실험을 한 학생과 대체실험을 한 학생 사이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후자가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부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관찰과 기억에 더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실험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해부실험을 하도록 한 주된 이유는 그것이 '체험(hands-on activity)'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부실험은 생물학 시간에 이뤄지는 일종의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해보는 '체험'에 더욱 흥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그것이 꼭 '해부'이기 때문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부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야생에서 포획하거나 포획된 동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일부 과학사에서 학교 및 사설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단지 이벤트를 위해, 오직 '해부되기 위해' 태어나게 하거나 야생에서 강제 포획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부가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손에서 산 채로 해부되는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게 해야 할까요?

* 참조: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2004), "Biology teachers' attitudes to dissection and alternatives", Altern Lab Anim.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581121>)

**참조: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2009), "Comparative Studies of Dissection and Other Animal Uses". (http://www.humanesociety.org/assets/pdfs/parents_educators/dissection_vs_alternatives_studies.pdf); Denise Cummins(2014), "Should You Let Your Kids Watch an Autopsy?", Psychology Today 재인용.



● 동물해부실험의 또 다른 사회적 비용

동물해부실험은 공감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학구열과 열의를 포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에 관한 증언들이 많아지면서,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영민한 학생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 발생할 손실 때문이라도 초중고교 해부실험을 악습으로 규정했습니다.

간혹 해부실험을 하기 전에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므로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억누르게 하는 해부실험의 과정은 생명존중에 정면으로 반할 뿐이며, 잔인한 해부를 거침없이 해내는 태도가 '과학적'이라는 오해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뿐입니다.

카라에서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의학·생명공학·과학교육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불필요한 관행적 해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내가 겪었던 교육 및 수련과정 중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많았다고 느꼈으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라는 메시지를, 또 어떤 생명과학 전공자는 "해부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부가 되긴 커녕 그들이 얻는 건 생명에 대한 경시뿐이다. 3D로 만든 영상 자료나 해부도를 보고 같이 그리거나 모형을 만드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우리가 기존의 과학적 '체험'과 '이벤트'에 다른 상상력을 불어넣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새로운 생명존중 감수성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들의 희생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반대 SNS 행동에 참여해주신 카라의 임순례 대표님과 김태리 배우님

● **2017년 3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법'이 발의되다!**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을 하는 곳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3R 원칙(Reduce 수를 줄이고, Replace 대체하고, Refine 고통을 줄이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도 동물도 더욱 세심히 배려 받아야 할 어린이·청소년의 해부실습은 거의 무법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황소개구리는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값싼 해부실습에 동원되기 위해 어디선가 대량으로 사육되어 초중고교 교실까지 들어옵니다. 황소개구리 반입 및 해부실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임에도 말입니다.

이밖에도 동물해부실습이 어린이·청소년에게 고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그들의 생명존중 감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7년 3월 15일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월 현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법률이 공포된다면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사설 학원 등에서만 동물 해부실습이 금지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 부분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부가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 먼저 배워야**

시민을 길러내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생명존중 의식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동물해부실습은 이 둘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동물의 생명을 평가절하하고 소비품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해부실습은 '생명학대 이벤트'이며, 생명존중 의식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생명존중 교육이 강조되는 오늘날,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해부보다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동물의 욕구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과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도 그 원칙과 가치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복지는 과학의 발전을 늦추지 않습니다. 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끕니다.

영카라의 동물사랑 수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정도의 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가장 많은 예로는 '개구리 해부실험'이 있다. 이 실험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부분 "개구리는 징그러웠지만 실험은 재미있었다."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실험한 주제가 해부이고, 마취한 개구리의 내장을 꺼내 결국은 죽이는 실험을 그저 재미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다. (...) 과연 학생들이 동물해부실험을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동물을 해치면서 피 흘리는 장면을 직접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관련 교재도 많고 동영상도 많아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며 굳이 살생할 필요가 없어졌다. 학생들은 아직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방법마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동물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여 죽이는 실험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너무 잘 못된 것이다. (...)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윤 (성○중학교 3학년)

더 찾아 보기

◆ 웹페이지

- 카라 [키워드 '해부' 검색] <http://www.ekara.org/>

◆ 기사

- (뉴스1, 2016) 카라 "교육부, 교육 현장에 '해부실험 금지' 지침 내려라" <https://goo.gl/9tJGG9>
- (뉴스1, 2017) 홍의락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험·실습 금지해야" <https://goo.gl/bYusfS>
- (뉴스1, 2017) "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합니다" <https://goo.gl/SCjfbN>

◆ 게시물

- (카라, 2015)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050>
- (카라, 2016)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은 동물학대이자 아동학대이다 -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법 해석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963>



8. 교실 밖, 배움의 현장들

동물보호교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도덕·미술 등 여러 과목에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해 동물 관련 주제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낮지만 별도의 특별수업이나 체험 학습, 외부 강사를 초청한 특강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실 밖에서 다양한 배움의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8장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동물보호 동아리 활동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교내에서도 동물보호를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동아리에서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동물에 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내 학생들이 가진 동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도 하며, 이를 활용하여 교내 포스터 전시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은 동물보호교육이 가진 긍정적 효과들 중 하나입니다.

● 동물보호 봉사 활동

전국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기동물 사설보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보호소와는 달리, 사설보호소는 정부의 도움 없이 개인들의 후원금을 받아 개인이 운영합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 재정이 빈약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동물보호 동아리를 소개해요! 한양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TAP

● TAP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은?

TAP의 뜻은 “Thinking at Animals’ Perspective(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의 줄임말입니다. 한양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동물보호 학술봉사동아리입니다. 2015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고 1-2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자율동아리(*요즘 고등학교에는 학교 개설 동아리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자율동아리 두 종류의 동아리가 있음)입니다. 우리사회를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물과 사람의 공생에 관해 생각해보며, 사회 전반의 낙후된 생명존중의식의 제고를 위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봉사활동과 교내 캠페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TAP가 걸어온 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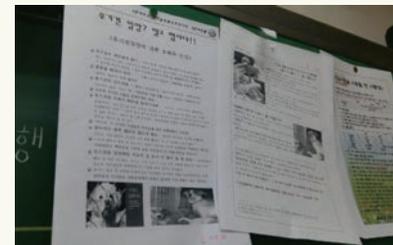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다보니 처음에는 단순하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니고 교내에 유기견들을 홍보해 보자! 라는 취지로 결성이 됐는데, 활동 진행 과정 중에서 동물권행동 카라의 교육을 듣고 동물권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리고, 알고 싶어서 최근에는 모피반대, TNR 등을 주제로 교내 캠페인과 동물복지 관련 학술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결성돼서 아직까지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여러 가지 캠페인들과 봉사활동이 주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기, 4기 ... 쪽쪽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기입니다. ^^

● TAP의 올해 활동은?

올해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학술 활동과 병행하고 있어요. 9월까지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모피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월 부터는 ‘사랑의 실천 한마당’이라는 행사와 다양한 캠페인(TNR을 알리자, 대부분 후원안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여름 카라를 방문한 TAP 2기 학생들



TAP 학생들이 진행한 유기견 입양 교내 캠페인



TAP 학생들이 왕십리 광장에서 진행한 모피반대 캠페인

사설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은 보호소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의 존재와 현실을 주변에 알림으로써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낳으며,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설보호소들이 봉사활동의 위험성이나 책임감을 고려해 '20세 이상', '파상풍 예방접종 완료' 등의 봉사자 모집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회적이기보다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학생일지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보호소 후원이나 바자회를 통한 모금 등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현장은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의 현장입니다.



영카라의 동물사랑 수기

나의 주변에서 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던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라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보호소였고, 보호소 중 시설이 좋은 축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열악했고, 단 두 분에서 4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명의 봉사는 큰 힘이 되는 것이었고, 매우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보호소가 들어서 있는 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땅을 사지 못한다면 강아지들이 여기저기 열악한 보호소로 흩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모두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든 1억 이상을 마련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었습

니다. 그런 와중에 보호소 소장님께서 고심 끝에 강아지들을 위한 마지막 소풍을 기획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인당 1권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되도록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했지만, 이 또한 잘 되지 않아 소풍 5일 전까지도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우리 학교에서라도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모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대자보를 급조해서 학교 곳곳에, 반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페이스북에 제보를 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만 볼 줄 알았던 제보 글이 좋아요로 인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글에 써두었던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와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신문과 TV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니다.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풍 전 4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소풍 참가희망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고, 후원금도 단 그 몇 일만에 1억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말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소풍은 물론 최고의 소풍이 되었습니다.

(...) 학교 친구들과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 하지만 교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무궁무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자보인 그 종이 한 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주 작은 것, 종이 한 장과 불편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청소년인 우리들도 못 할 일이 없습니니다!

예현 (창고고등학교 2학년)

더 찾아보기

◆ 웹페이지

- 카라 [교육참여] <https://www.ekara.org/parttake/school>
- 카라 [봉사하기] <https://www.ekara.org/parttake/serve>
- 카라 [동물보호교육]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

◆ 기사글

- (카라, 2017) [교육후기] 강원도 화천 청소년 동아리 The Angels와 함께한 9번의 이야기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9021>
- (카라, 2017) [생명공감 토크콘서트] 동물·생명에 대한 4월 신간도서 20권 소개!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489>

부록



한국의 동물보호법*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12개의 조문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7년과 2011년에 전면 개정되어 지금의 47개조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년 3월 21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이루어졌으며,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에서 범죄라고 정의·분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일종이며, 동물학대의 금지뿐 아니라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반려동물 등록, 피학대 동물 보호조치, 유기동물 보호, 동물판매업 등 관련 산업 관리, 동물보호감시원·명예감시원 제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벌칙의 최고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3월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누구든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보호법 전문 보기: <https://goo.gl/xJbfPp>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와 반려 목적으로 함께 할 경우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특히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2018년 3월 2일 이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의2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동물보호법 전문 보기: <https://goo.gl/xJbfPp>

●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최대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3월 22일 이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018년 3월 22일 이후에는 '죽이는 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수정되어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동물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한국의 형법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만족되어야 비로소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으며, 증거(동영상, 사진, 녹음, 증언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될지라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보다 완전한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강아지 번식장'이나 '개 식용산업' 등 반려동물의 보호체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처벌규정 상한에 비해 실제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약하며,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이전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동물관련 산업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고, 특히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이나 먹이 주기를 게을리 하는 등 '태만'으로 인한 동물학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습적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며, 사법 경찰이 출동하기 전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즉각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이 평생 바닥을 밟지 못하며 성긴 그물망에 발이 끼어 상처와 질병에 취약해지게 하는 '뜯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적, 구조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항도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그 변화 과정에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동물권행동 카라 소개

슬로건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비전

동물이 존엄한 생명으로서 존중 받고 본연의 삶을 영위하며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착취 및 야생동물 위협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른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동물보호교육 및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카라는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 투명성 및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동물권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 카라 더불어숨 센터

2014년 8월, 카라는 입양카페 동물병원 도서관 교육장이 포함된 '더불어숨 센터'를 서울 마포구에 개관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연구 지원 등의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기 위한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이는 교육 및 캠페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인식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프라를 만들고 확장해가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카라는 더불어숨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복지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카라 동물보호교육

카라의 동물보호교육은 공감과 배려의 경계를 고통 받는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감수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모든 동물이 본연의 삶을 영위하며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의 교육은 ▲ 현재 우리 사회의 동물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인식의 변화 및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교육은 ▲ 풀브리 동물보호교육 실행, ▲ 동물보호교육 인프라 확장, ▲ 동물보호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카라 교육 주요 연혁

- 2012 ~ 현재** •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실시 중
- 2013** • 동물사랑교과서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발간
- 2013 ~ 2014** •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실시
- 2014** • '카라 더불어숨 센터' 개관
 - 생명공감 청소년 워크숍 '영카라' 실시
 -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국어, 사회, 미술 시간에 하는 동물보호교육-교과교육과 동물보호 교육 접목하기' 실시 (경기교육청)
 -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동물보호교육, 최고의 인성교육' 실시 (서울시교육청)
- 2015** • 부산, 제주에서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실시
 - 동물보호 청소년 공모전 '너의 생명 나의 공감' 실시
 - 반려동물 행동교육 워크숍 '개는 평생 배운다' 실시
- 2015 ~ 현재** • 인천대교 사회공헌팀, 강동구청 등과 함께 동물보호교육 실시 중
- 2016** • 동물사랑 영화제 '고돌씨네', 북콘서트 '고돌복스' 등 동물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 2016~ 현재** • 2016년부터 관악구청과 함께 동물보호교육 실시 중
- 2017** • 만 5세 유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동물지킴이!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발간

● 카라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동물보호교육]

▷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1회 찾아가는 수업부터 여러 회에 이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학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진로 직업 체험센터 등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동물보호교육 진행.

▷ 더불어숨 센터 내방 교육

카라 더불어숨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 인터뷰, 시설 견학 등 진행 (매주 수요일 상시 신청 가능)

[동물복지 평생교육]

▷ 생명공감 키크도서관

동물권, 동물복지를 소재로 하는 도서와 연관된 북콘서트, 동물 이슈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 등 매달 실시, 연령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물보호활동가 양성교육]

▷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동물보호교육을 카라와 함께 실시할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 카라 교육 문의

카라 대표전화 02-3482-0999

카라 교육아카이브팀(교육 문의 및 신청) edu@ekara.org / www.karaedu.org

동물 친화적 학교 만들기

펴낸날 2018년 2월
기 획 카라교육아카이브팀 (박아름, 간현임, 박선미, 권유경)
집 필 권유경, 박아름
감 수 김혜란, 전진경
펴낸곳 (사)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임순례
주소 : (03998)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 02-3482-0999
팩스 : 02-3482-8835
웹사이트 : 카라 홈페이지 www.ekara.org / 카라 동물보호교육 www.karaedu.org

- * 이 책은 스킨케어 브랜드 클레어스(dear,klairs)의 기부 프로젝트 '우주개 라이카'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2014년 영카라에 참여해 소중한 수기를 작성해준 수민, 설아, 주희, 가연, 희경, 동희, 지윤, 예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이 책의 PDF 버전은 카라 동물보호교육 웹사이트(www.karaedu.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책에 관련한 문의 및 요청은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이메일(edu@ekar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친화적
학교 만들기



9 791195 01155 1

ISBN 979-11-950115-5-1

비매품/무료

03370

이 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 적용 사례, 문의 등은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이메일(edu@ekar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